

주요경과

제7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

- 일시: 2015. 11. 9.(월) 18:00
-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국제화상회의실
- 참석자: 6명 (체육회: 위원 추천 불수용으로 인한 불참, 국회: 미추현)
- 주요내용
 - (심의사항) 통합체육회 정관 중 일부조항 심의·의결
 - 올림픽현장 준수, 통합체육회 사업 등 의결
 - 명칭, 체육회 수익금 중 종목단체 배분비율, 재정 독립성, 사무총장의 승인취소 등은 추후 재심의

체육회, 제9차 통합추진위원회 회의

- 일시: 2015. 11. 11.(수) 08:00
- 장소: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
- 참석자: 14명
- 주요내용
 - (보고사항) 위원 위촉 / 대한체육회 추천인사 교체 현황 / 통합체육회 정관(안) 핵심쟁점 / 통준위 운영 등 문제점 → 원안 접수
 - (심의사항) 통합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 자문위원회는 두되, 구성 및 운영은 사무처에 위임

제8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

- 일시: 2015. 11. 16.(월) 14:00
- 장소: 롯데호텔서울 2층 에메랄드룸
- 참석자: 11명(전원 참석)
- 주요내용
 - (보고사항) 체육단체 통합 마스터플랜 → 원안 접수
 - (심의사항) 통합체육회장 선거제도 설계방향
 - 통합체육회장은 별도의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
 - (심의사항) 회원종목단체 규정(안)
 - 회장선출기구 인원 및 체육회 수익금 배분비율 등은 추후 심의
 - 대의원의임원 겸직 불가, 회장 사고시 회장이 지명 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대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전국시도체육회사무처장협의회 간담회

- 일시: 2015. 11. 19.(목) ~ 20.(금)
- 장소: 울산 롯데시티호텔
- 체육단체 통합 관련 주요내용
 - 체육단체 통합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 공유
 - 통합체육회 명칭 및 시도지사의 당연직 회장 여부 등 논의

제9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

- 일시: 2015. 11. 23.(월) 16:30
- 장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회의실
- 참석자: 11명(전원 참석)
- 주요내용
 - (심의사항) 회장선거제도 설계방안 → 추후 심의
 - (심의사항) 통합체육회 정관 일부조항 심의·의결(안)
 - (심의사항) 시도체육회 규정 심의·의결(안)
 - 시도지사의 당연직 회장 여부, 시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지위 등 주요사항 추후 심의
 - (심의사항) 통합체육회 명칭 결정
 - 차기회의에서 심의·의결 예정

향후일정

체육단체 통합 포럼 및 체육인 존경과 화합 한마당

- 일시: 2015. 11. 27.(금) 15:00
- 장소: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
- 주최: (사)한국체육인회, (사)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
- 주관: 한국체육학회, 한국선진문화체육연합

제10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

- 일시: 2015. 11. 30.(월) 15:00
- 장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회의실
- 주요내용
 - (보고사항)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 규정
 - (심의사항) 통합체육회 명칭, 시도체육회 규정, 재외 한인체육단체 및 등록단체 규정, 가입 및 탈퇴 규정 등

제11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

- 일시 및 장소: 2015. 12. 7.(월) / 미정
- 주요내용: 임원심의위원회규정 등 심의

[시·도체육회 통합 논의 현황]

구분	일자	내용
충남	11.17.	〈통합준비위원회 및 추진단 발족〉 -11월 17일 도 체육단체 통합준비위원회 발족 회의 개최 -통합준비위원회 구성 · 도지사 추천 1인, 도의회 추천 2인, 체육회 및 생체 추천 8인으로 총 11인 구성 -통합추진단 구성 · 충남도 및 양 체육회 실무진 등 총 8인 구성
전남	11.18.	〈통합설명회 개최〉 -11월 18일 체육회, 생체가 전라남도 체육회관에서 양 단체 임직원 및 시군 체육부서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설명회를 개최 -내년 3월까지 도 및 시군 체육단체 통합 추진
인천	11.19.	〈인천시태권도협회-태권도연합회 통합〉 -11월 19일 두 단체의 대의원 총회를 열어 단체 해산, 태권도 통합 단체 명칭, 회장 선임, 임원 및 대의원 승계 등 문제 논의 -인천시태권도협회 출범 · 명칭: 인천시태권도협회 · 회장: 양 단체 회장직을 겸했던 노순명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만장일치 추대
서울	11.24.	〈이사회 및 총회 개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 통합의 대전제에 대해 의논

[대한축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합 논의]

대한축구협회는 24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국축구연맹회와의 통합 작업을 내년 2월까지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문체부 주도로 만들어진 '축구혁신 TF' 외에 10명 내외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실무 작업을 진행합니다.

양 단체는 내년 2월 통합 이후 각 대의원, 프로축구구단 대표 및 직능별 축구계 종사자 대표 등을 포함한 100여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 이전까지는 현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통합 과정을 이끌 예정입니다.

(중앙) ▶ “체육단체통합준비위 구성 완료...8차회의부터 전원 참석”(11월 10일 연합뉴스, [자세히 보기](#))

“[고진현의 창(窓)과 창(窓)]상임감사에서 드러난 체육단체 통합의 불편한 진실”(11월 12일 스포츠서울, [자세히 보기](#))

“체육회 통합에 '관치 그림자'...곳곳 정부 입김 강화”(11월 12일 JTBC 뉴스룸, [자세히 보기](#))

“돌 테파 독일체육회 부회장 “체육단체 통합 긴 설득 과정 필요””(11월 14일 중앙일보, [자세히 보기](#))

“통합체육회장, 별도의 선출기구 통해 뽑기로 의결”(11월 16일 스포츠조선, [자세히 보기](#))

“대한체육회” 3월 체육단체 법적통합후 10월까지 ‘김정행 체제’ 지속”(11월 24일 스포츠조선, [자세히 보기](#))

(시도) ▶ “충남도 엘리트·생활체육 통합준비위 출발”(11월 17일 충청투데이, [자세히 보기](#))

“광주시 체육회·생활체육회 내년 2월 통합”(11월 18일 광주일보, [자세히 보기](#))

“전남도, 통합체육회 출범한다”(11월 18일 매일일보, [자세히 보기](#))

“시체육회+생활체육회' 대전 통합추진위 첫발”(11월 18일 중도일보, [자세히 보기](#))

“울산서 전국시·도체육회 사무처장 협의회 열려”(11월 19일 경상일보, [자세히 보기](#))

“인천 첫 통합종목은 태권도”(11월 19일 경인일보, [자세히 보기](#))

“대구시체육회 대구체육 발전 위해 최선 다하자”(11월 20일 대구일보, [자세히 보기](#))

“지자체체육회 자립 일본에서 답 찾다”(11월 25일 경북일보, [자세히 보기](#))

(경기) ▶ “체육단체 공공탄생, 축구협회-생활축구연합 내년 2월 통합”(11월 24일 중앙일보, [자세히 보기](#))



1 대한민국 대표 체육단체로서의 역사성 & 정통성

- ① 글로벌 국가 브랜드
 - '대한체육회(KOC; Korean Olympic Committee)'는 95년간 국내 및 국제 스포츠계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온 자랑스러운 글로벌 국가 브랜드로서, 이를 포기하고 한글 명칭을 단순 영문 직역해 사용할 필요는 없음
- ② 정통성을 이어 온 위대한 유산
 - '47년 KOC 설립 당시 선각자들은 장래 통일된 조국을 염두에 두어 한반도 내의 유일한 NOC로 "South Korea"가 아닌 "KOREA"라는 국가 호칭으로 IOC 가입을 신청하였고, 명칭도 "KOC"로 승인을 받았다.

※(사례) '03~'05년 '대한올림픽체육회'로 명칭 변경 시도
→ 다수의 체육원로 및 체육계 인사들의 반대로 무산

대한체육회
(Korean Olympic Committee)

2 '대한'은 대한민국 국호의 '성씨'

- ① 대한민국 국호 중 국가를 대표하는 성씨는 '대한'
 - 대한제국, 대한민국에서 제국·민국은 국가 정체성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부분은 '대한'
- ② '대한' 국호 사용 사례
 - 역사 및 문화 속 '대한' 국호 사용 사례
 - (대한제국 선포) 국호를 '대한'으로 정함
 - (헌법)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애국가)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 타 분야 유서깊은 대표단체의 '대한' 국호 사용 사례
 - 대한적십자사(1905년), 대한상공회의소(1948년), 대한의사협회(1948년), 대한불교조계종(1962년), 대한변호사협회(1952년), 대한건설협회(1948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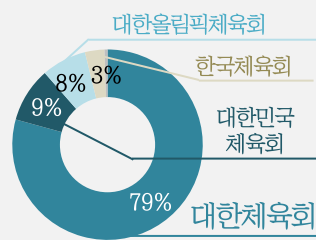
3 명칭 변경 시 행·재정적 낭비 발생 우려

- ① 국제스포츠 무대에서의 지위 및 인지도 소실
- ② 명칭 체계의 혼란 초래
 - 하위단체 혼란: 중앙단체 명칭 변경 시 하위단체 명칭 체계에 혼란 야기
 - 관계자 및 일반 국민 혼란
- ③ 행정력 낭비
 - 전산시스템, 사업명칭 변경 및 새 명칭 홍보를 위한 추가인력 소요
- ④ 예산 낭비
 - 전산시스템 정비, 사무실 현판, 직원명함, CI 교체 등 비용 추가 소요(230여 시도/시군구 체육회 및 1,200여 시도/시군구 종목단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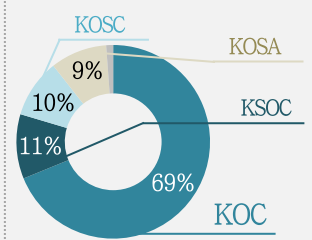
4 체육인들의 지지

- ① 체육계 종사자 대상 명칭 지지도 조사 결과
 - 조사대상: 성인 남녀 체육계 종사자(총 610명 응답)
 - 체육행정,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체육학계 등
 - 조사기간 및 방식: '15. 11. 16.~19. / 온·오프라인 설문
 - 조사기관: 대한체육회

1. 국문 명칭 지지도



2. 영문 명칭 지지도



5 대한체육회(KOC; Korean Olympic Committee) 명칭이 걸어온 역사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